



순창 인계 의용소방대원, 사랑의 손길 나눔 실천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5일 인계남·여 의용소방대원 40명은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로 방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관련 특별방역 활동도 함께 병행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100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불편사항 살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점검 ▲난방기구 등 화재취약사항 안전점검 등이다. 양정희 의용소방대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참여하게 됐다"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우협회 진안군지부, 진안군에 한우 90kg 전달

전국한우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이우식)가 지난 5일 진안군청을 방문하여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우 90kg(37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후원받은 한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이웃에게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따뜻한 기부문화 조성은 누구나 가져야할 바람직한 모습이며, 항상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한우 농가들의 뜻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식 지부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진안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119 장난 전화 최대 500만원 과태료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5일 2020년 10월 21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119 거짓 신고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 개정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신고 1회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는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라 거짓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줄어들어 재난현장에 출동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규 서장은 거짓 신고 처벌의 강화로 119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불필요한 출동이 줄어들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랑한다면 꽃으로 봄을 선물하세요

완주군, '원 테이블 원 플라워' 꽃 소비 촉진 직거래 운동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주변 이웃들의 코로나 블루를 해소해 주자며 '꽃 선물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지난달 말에 완주군화훼농가연구회와 직거래 협약을 맺고 톨립과 하이신스(화병), 장미, 프리지어 등을 부모님이나 일상에 지친 집콕족에게 명절 선물로 보내주는 '꽃 소비 촉진 직거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완주군은 일상생활에서 화훼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책상마다 꽃들을'이라는 뜻의 '원 테이블(one table) 원 플라워(one flower)' 구호를 내걸고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8일과 22일 오전 1층 로비에서 꽃을 수령해 가도록 했다. 직거래 협약 덕분에 톨립은 10송이 1단에 7,000원에 예약 접수받고 있으며, 하이신스 1개(화병)는 6,000원에, 프리지어 30개 3단과 장미 10송이 1단은 각각 1만 원의 싼 값에 아름다운 꽃과 함께 소중한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지역 화훼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꽃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저렴한 가격에 아름다운 꽃을 친지나 이웃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 문이 가쁘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앞서 지난해 연초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돕기에 나선 바 있다. 완주군의 화훼 면적은 20여 ha로 경부선터미널화훼도매시장과 양재동 화훼공판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납품해 왔으며,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그동안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교육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지난 1일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83명을 선발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2명, 산림보호지원단 4명,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요원 4명, 임도관리단 8명으로 총 83명이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발대식을 생략하고 각 사업별로 일지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 설명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갈음했다. 성상용 소장은 "산불은 신속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고는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대산면, 남녀의용소방대 15가구 위문품 전달

남원시 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면 남녀의용소방대(대장 양중섭, 정정옥)가 설 명절 이웃돕기사업으로 백미 10kg 15포, 라면 15상자, 화장지 등 1백만원 상당의 성품을 지역내 소외계층 15가구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 40여 명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매일 1회씩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방역 소독을 해 왔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및 소화기를 점검하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떡 사랑 바자회

금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용석)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3회 떡 사랑 바자회' 행사를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손소독 실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드라이브 스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사회단체 및 개인 후원으로 진행했으며, 금구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 기부한 질 좋은 백미로 만든 떡국용 떡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금산면, 신세계병원 라면 57상자 전달식

김제시 금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노윤태)는 지난 5일 신세계병원(병원장 김한주)에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40개입) 57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병원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이날 받은 라면은 관내 57개 마을마다 57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물품(라면)을 통해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윤태 금산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지원해준 성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민규 진안군의원,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진안군의원(의장 김광수) 김민규 의원은 5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챌린지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알림: 전주교육대, 우석대 평생교육원 스포치과정 모집= 내용: 스포치 학습내용(긴장해소, 웃음코칭, 시낭송, 리더십, 연설, 토론, 면접, 글쓰기, 인간관계), 수업시간: 매주 1회 주강, 야간 수업, 대상: 대학생 및 일반성인 누구나,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김양욱), 모집기관: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서학동 소재),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소재)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